

연중 제 20 주일

제 1 독서 : 예레 38,4-6.8-10

구약 성경(46권)

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사랑의 계약

- 모세오경 ('토라' - 율법서) : 창세기, 탈출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.

창조, 인류의 기원, 해방과 계약, 하느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이야기.

- 역사서 : 여호수아, 판관기, 룻기, 사무엘상·하, 열왕기상·하, 역대기상·하, 에즈라, 느헤미야, 토빗, 유딧, 에스테르, 마카베오상·하.

가나안 정복, 약속된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, 유배시대 후 재건 이야기

- 시서와 지혜서 : 욥기, 시편, 잠언, 코헬렛, 아가, 지혜서, 집회서.

하느님 신앙에 바탕을 둔 윤리적 교훈들과 실천적 권고들.

- 예언서 : 이사야, 예레미야, 애가, 바룩, 에제키엘, 다니엘, 호세아, 요엘, 아모스, 오바드야, 요나, 미카, 나훔, 하바쿱, 스바니아, 하까이, 즈카르야, 말라키

죄의 고발과 회개 촉구, 죄에 대한 심판 선언, 하느님의 구원 선포.



- 예레미야 : ‘하느님이 세우시다’
라는 뜻의 이름
- 구약의 4대 예언자
-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께 대
한 배반의 결과로서 유다 왕국
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의 당위
성을 주장

제1독서

<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?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(예레 15,10).>

▣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38,4-6.8-10

그 무렵 4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.

“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.

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,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

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

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.”

5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“자,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.

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.” 하고 말하였다.

6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

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.

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,

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.

8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.

9 “저의 주군이신 임금님,

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.

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,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.

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.”

10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.

“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,

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

1

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스후르의 아들 그달야와 셀레므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후르가,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.

2

“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‘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,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.’

3

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—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.”

4

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. “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.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,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.”

5

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“자,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.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.” 하고 말하였다.

6

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.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 보냈는데,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.

7

왕궁에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있었는데,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. 그때 임금은 ‘벤야민 성문’에 앉아 있었다.



바벨론제국

지중해

아시아

아프리카

아라비아



복음

GOSPEL



복음 : 루카 12,49-53

Luke 12, 49-53



복음

<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>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2,49-5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49 “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.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?

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.

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?

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?

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

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,

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.

53 아버지가 아들에게, 아들이 아버지에게, 어머니가 딸에게, 딸이 어머니에게
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,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<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.> <신경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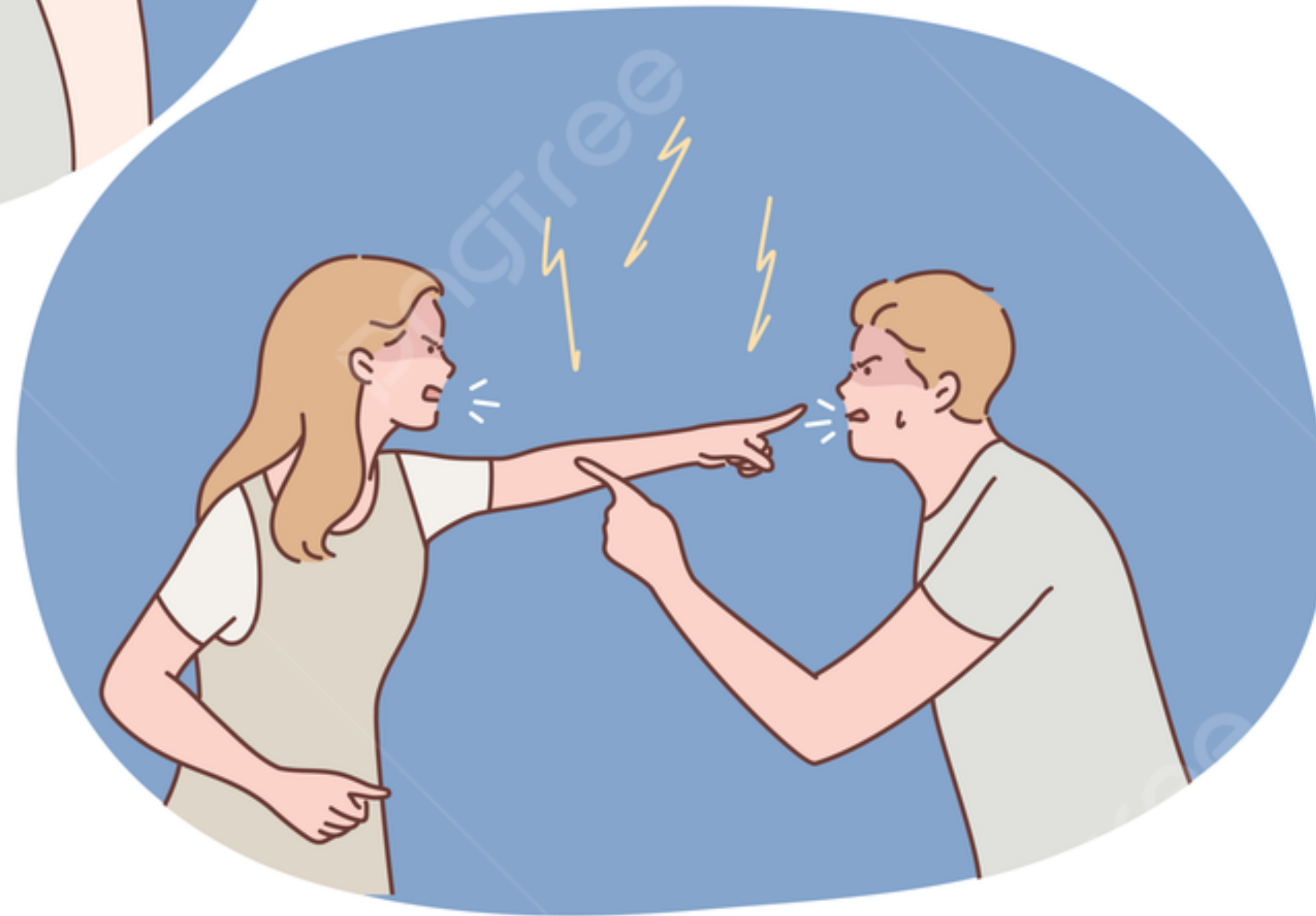
내가 너를
이웃으로
사랑하리다

루가 12.91

IXOYE (수리안 케마스)









- 예레미야 : ‘하느님이 세우시다’
라는 뜻의 이름
- 구약의 4대 예언자
-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께 대
한 배반의 결과로서 유다 왕국
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의 당위
성을 주장

예언자의 소명

4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.

5 “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.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.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.”

6 내가 아뢰었다. “아,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.”

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저는 아이입니다.’ 하지 마라.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.

8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. 주님의 말씀이다.”

9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,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 준다.

10 보라,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,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.”

연중 제20주일

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.

루카 12,49-53













Lot Fleeing Sodom, Benjamin West, 1810.

제 2 독서 : 히브 12,1-4

제2독서

<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.>

▣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12,1-4

형제 여러분, 1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,
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,
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.

2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.

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,
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,
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.

3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.
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.

4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
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까.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





"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give
peace on earth? No, I tell you, but rather

DIVISION."

LUKE 12:51



